

한국 '마르크스학' 정초 다진 기념비적 저술

정문길 지음 「마르크스의 사상형성과 초기저작」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

반공안보국가인 한국에서는 그간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위험한 불온사상으로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도 마르크스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도입을 주도한 층은 주로 그 시기에 이르러 변혁적 관점을 지니기 시작한 운동권의 젊은 활동가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소련의 국가이데올로기로 기능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맹목적인 신조화 현상 등과 결부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여러 사상적 조류들은 물론 마르크스 자신의 사상조차도 폭넓게 음미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소련-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이 지닌 합리적 측면마저 조급히 폐기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지닌 제반 계급적 모순들에 대한 비판으로서 출현한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과 현실분석의 내용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간 급속한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나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의 정초자인 마르크스 자신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문길 교수가 1987년에 출판한 「에피고넨의 시대」의 후속편으로 집필하여 펴낸 「마르크스의 사상형성과 초기저작」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다른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상 자체의 내적 논리 등을 충실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르크스학'(Marxologie, marxology)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사상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요구되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저자가 왜 그와같은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에게 저자의 문제의식과 저자 자신의 지적 여정 등이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4부에 실린 '한계의 인식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서울, 보훔, 암스테르담, 그리고 샌다이'라는 두 편의 글을 먼저 읽어 볼 것을 필자는 권하고 싶다. 이 글들을 통해서 또한 독자는 타인에게는 매우 사소한 문제로 보일지도 모르는 연

마르크스사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

이어 이 책에서 행한 작업들을 통해

저자는 그간 한국의 마르크스

연구자들 중 어느 누구도 밟지 못한

'마르크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 책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다른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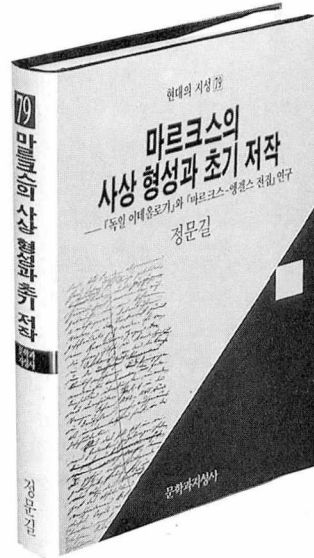
자체의 내적 논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점에서 있다.

구주제들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탐구해 나가는 한 학자의 진지한 면모를 접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편의 좋은 논문이 탄생되기까지의 산고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의 이 두편의 글은 논문의 질 보다 양을 중시하는 현 시기의 학문풍토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제1부 제1장에 실린 '독일관념론의 전개'는 1848년 3월 혁명 이전 시기의 사상사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초기사상 형성의 사상적 배경을 해명하려는 저자의 오래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글이다. 그리고 제1부 제2장에 실린 '마르크스 아닌 포이에르바하'는 그간 마르크스의 논문으로 인식되어온 '슈트라우스와 포이에르바하의 중재자로서의 루터'라는 논문의 필자가 마르크스가 아니라 사실은 포이에르바하라는 주장이 수용되어간 과정을 서술한 글인데, 이 논문은 이 책의 본격적인 연구주제를 이루고 있는 마르크스 초기저작에 대한 서지학적·문헌학적 연구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2부에 실린 네편의 논문, '편찬사를 통해서 본 '독일이데올로기'' '독일이데올로기는 계간지용 원고로 집필되었는가?' '마르크스의 「독일이데올로기」, 「I, 포이에르바하」 장의 재구성' 및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학계의 「독일이데올로기」 논쟁'은 역사유물론적 문제설정이 최초로 제시되어 있음으로써 마르크스의 사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헌 중의 하나



로 간주되고 있는 「독일이데올로기」의 성립사 및 텍스트 자체에 대한 서지학적·문헌학적 접근을 다각적으로 행하고 있는 글들이다. 「독일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사상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지만 그것이 미완성 초고인데다 기존의 텍스트들이 편찬 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독일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그의 문헌비판적 작업은 마르크스-엔겔스 사상의 발전과정을 옹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지식들을 폭넓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어 제3부에 실린 '미완의 꿈-「마르크스-엔겔스 전집」 출판'과 '전환기의 풍경'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그간의 「마르크스-엔겔스전집」(MEGA) 발간의 경과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글들이다. 이 글들을 통해 또한 우리는 마르크스-엔겔스사상이 갖는 학문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MEGA의 지속적 발간과 그 완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마르크스사상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 이어 이 책에서 행한 작업들을 통해 정문길교수는 그간 한국의 마르크스 연구자들 중 어느 누구도 밟지 못한 '마르크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필자는 그의 이러한 외로운 노고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내며, 그의 노력이 앞으로도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필자는 마르크스 사상 및 그것과 연관되는 서양의 여러 사상들을 연구하는 데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 책을 마르크스사상 및 서양사상의 연구자들이 필독할 것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그의 책은 한국에서 '마르크스학'을 정초지운 기념비적 저작으로 기록될 것임을 필자는 의심치 않는다.

출판저널이 편집자장 한 분을 찾습니다.
한 분을 찾습니다.

출판저널에서 함께 일할 편집자장 한 분을 찾습니다. 출판 및 잡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33~35세 가량의 남자분으로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글솜씨와 남의 글을 제대로 읽고 판단하는 안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갖춘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이력서와 사진, 가능하면, 이런저런 지면에 활자화됐던 본인의 기사 두세 건을 복사해 "출판저널 편집인"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접수 기한은 5월 25일까지로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 심사 후 면접일자를 개별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732-1431에서 3까지 편집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내 출판저널